

서울특별시 보궐선거 아동정책공약 제안서
‘아동이 살기 좋은 서울특별시’

2021.02

“아동이 살기 좋은 서울특별시를 위해 제안합니다.”

지난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7대분야, 66개 핵심공약, 총 229개 세부사업)이행 분석 결과에 따라, 서울시는 가장 높은 등급인 SA등급을 받았습니다. 특히 75점 이상으로 높이 평가된 ‘주민소통분야’가 눈길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229개 세부 사업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책의 대상자가 대부분 청년, 근로자, 어르신, 신혼부부 등으로, 아동은 언급조차 안되어 있거나 일부 정책에 미미하게 언급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책에 아동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도 보육, 돌봄, 학대 등 분야가 매우 한정적이며, 그나마도 아동의 입장이 아닌 성인의 입장에서 본 정책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아동을 정책의 대상이 아닌 특정 대상에게 귀속되어 있는 존재, 그래서 정책의 효과 및 혜택을 나눠 받는 존재로만 본다면 전 세계적으로 행복도가 최하위 수준인 우리나라 아동들의 삶이 획기적으로 바뀌기는 힘들 것입니다.

아동을 독립적인 주체로, 정책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아동의 입장에서 아동과 함께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해야 합니다. 더불어 사회, 문화, 교육, 환경, 정치 등 모든 영역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합니다.

초록우산 어린이재단은 주요 선거가 있을 때마다 토론회, FGI, 설문조사 등을 통해 전국 아동들이 직접 자신에게 필요한 정책공약을 고민하고 토론하는 장을 만들고 있으며, 일련의 과정을 통해 함께 공약을 만들어 정당 및 후보자에게 제안하는 <미래에서 온 투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약 2만명의 아동들이 국회 및 지자체에 반복적으로 제안했으나 반영이 안된 정책 또는 반영을 약속했으나 이행이 안된 공약들과, 민선 7기 서울시장 아동청소년 공약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이번 보궐선거에서 반드시 다뤄야 할 정책과제들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번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는 아동 정책의 전문가인 아동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듣는 선거가 되길 기대하며, 본 정책 제안서의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최종 공약에 반영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민선7기 아동청소년 정책공약 분석 (2020.06.기준)

1. 미래특별시 (9개 핵심공약, 33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없음.
2. 상생특별시 (9개 핵심공약, 37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일부 포함
 - 2-6) 불법 불공정거래 갑질 ZERO 정착 (세부사업 6개 중 1개 해당)
 - 2-6-4) 통신판매 전자상거래 임시중지명령 권한 확보 및 어린이 생활용품 유해화학물질 안전성 조사 강화

⇒ 이행률: 정상추진
3. 사람특별시 (9개 핵심공약, 23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일부 포함
 - 3-2) 국공립어린이집 이용 아동 50% 달성 (4개 세부사업 해당)
 - 3-2-1)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3-2-2) 3~5세 민간어린이집 이용 차액 보육료 부담 면제
 - 3-2-3) 야간, 주말 보육 등 보육 틈새 해소
 - 3-2-4) 생태친화형 보육 강화

⇒ 이행률: 정상추진 2, 이행 후 계속추진 2
 - 3-3) 초등 온종일 돌봄 서비스 전면 확대 (1개 세부사업 해당)

⇒ 이행률: 이행 후 계속 추진
 - 3-4)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인프라 마련 (2개 세부사업 해당)
 - 3-4-1)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
 - 3-4-2)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서울
 - : 권역별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 (1개소→5개소)
 - ※ 학대예방센터 설치 사업은 아동학대 대응 체계 개편 사업으로 변경
 - : One-Stop 아동 학대 지원체계 마련

⇒ 이행률: 정상추진 1, 이행 후 계속추진 1

3-7) 부양의무제 폐지를 통한 빈곤사각지대 해소 (6개 세부사업 중 1개 해당)

3-7-2) 중점보호가구에 대한 부가 급여 지원

: 장애아동 수당 대상자 중 시설 거주 수급자인 중증장애아동

⇒ **이행률: 이행 후 계속추진**

3-9) 외국인 근로자 이주민 생활권 보장 확대 (5개 세부사업 중 2개 해당)

3-9-2) 외국인 의료건강권 보장

: 외국인 근로자 등 의료비 지원(대상: 근로자 및 자녀, 배우자, 난민 및 자녀 등) 등

⇒ **이행률: 일부 추진 (임기 후 완료 예정)**

3-9-5) 긴급주거지원이 필요한 외국인 인권보호

: 외국인주민, 난민 거주지 제공 및 자립 역량 강화 지원

: 외국인 인권보호 프로그램 운영 및 생활 정착 지원 (난민 아동 의료비 지원사업 등)

⇒ **이행률: 이행 후 계속추진**

4. 안전특별시 (9개 핵심공약, 42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일부 포함

4-4)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9개 세부사업 중 2개 해당)

4-4-6)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확대

: 아동복지시설 120개소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그룹홈 등) 410대 지원

⇒ **이행률: 이행 후 계속추진**

4-4-7) 어린이집 IoT기반 공기측정기 시범사업 및 실증연구 진행

: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모니터링 및 실증연구를 통한 안전한 보육환경 조성

⇒ **이행률: 이행 후 계속추진**

5. 일상특별시 (9개 핵심공약, 31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없음.

6. 민주주의특별시 (3개 핵심공약, 11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없음.

7. 맞춤형 시민정책 (18개 핵심공약, 53개 세부사업): 아동 공약 일부 포함

7-10) 성희롱 성폭력 없는 성평등 도시, 서울 #WithU 추진 (5개 세부사업 중 2개 해당)

7-10-2) 성평등 소셜 디자이너 양성

: 일상의 성차별에 침묵하지 않는 학생 활동가 양성

: 지역의 성평등 문화 확산자로서 교육활동가 양성 (초·중·고 대상 성평등 교육 강의)

⇒ **이행률: 이행 후 계속추진**

7-10-3) 다양한 세대 성평등 교육 확대

: 학생·교직원·학부모 대상 성평등 교육

: 성평등 교육활동가 양성

⇒ **이행률: 정상추진**



전체 공약 중, 아동 관련 공약 6.5%

민선7기 서울특별시장 공약(7대분야, 66개 핵심공약, 총 229개 세부사업) 중 아동 관련 핵심공약은 3개, 세부사업은 15개로, 세부사업 기준 전체 공약의 6.5%를 차지함.

서울시 인구 9,657,969명 중, 아동 인구(0~17세, 1,277,981명)가 차지하는 비율이 13%임을 감안했을 때, 아동 관련 공약 및 세부 사업의 비율이 다소 낮음을 확인할 수 있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아동 정책 공약

출생률 저하, 아동청소년 자살률(자살 시도 및 자해 빈도 포함) 증가,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 건수 증가,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 증가, 아동 성착취 범죄 급증, 가출 청소년 증가 등 아동·청소년이 처한 현실은 매우 참혹함. 한국 아동 행복지수가 OECD 회원국 평균 7.6점 보다 1점이나 낮고, 특히 주관적 행복지수는 OECD 꼴찌 수준인 ‘매우 심각’상태임에도 민선7기 아동 관련 공약은 보육과 돌봄(전체 공약 15건 중, 12건 차지)에만 치중되어 있음. 특히, 아동을 권리의 주체자로 인정하고, 시민으로서의 권리를 실현하도록 촉진하는 정책이 전무하다는 것은 ‘주민소통분야’에서 SA등급을 받은 서울특별시의 모습과는 상반되는 결과임.

따라서, 서울시는 유엔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 등을 바탕으로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아동 공약을 수립·이행해야 함.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 정책공약으로 제안합니다.

I. 아동 놀권리 보장

- 1) 아동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 2) 지역사회· 학교 내 놀이 공간 확대 및 아동친화적으로 개선
- 3) 놀이 및 휴식시간, 놀이 기회 확대

II. 안전한 통학로 구축

- 1) 차별 없이,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전한 통학로 마련
- 2) 안전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 3) 아동 의견 청취
- 4) 아동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구축

III.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 2)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
- 3)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양육체계 점검
- 4) 성착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 체계 마련

IV. 아동주거복지 실현

- 1) 아동주거빈곤 현황 파악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체계 구축
- 3) 아동주거급여 신설 등 주거급여 현실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실시
- 4) 아동 대상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5) 주거 빈곤지역, 공공임대주택 단지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환경 개선

V. 아동친화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 1) 아동친화적인 감염병 정보공개 방식 도입
- 2)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 3) 아동 친화적 기후위기대응 체계 마련

I 아동 놀권리 보장

1. 관련 기존 공약: 3-4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 인프라 마련

1-1) 세부 사업: 3-4-1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

1-2) 내용: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체육활동 공간 확충, 서울시교육청과의 협력을 통한 1인 1예1체 활동 지원 강화 등

1-3) 이행 완료도: 이행 후 계속 추진

2. 추가 공약 필요성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의 놀이권 보장을 위한 조례 (2021.01.07)

¶ 기존 공약 3-4-1 ‘아동청소년 문화/체육 인프라 확보’는 아동 놀권리의 ‘물리적 공간’ 확보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유엔아동권리위원회에서는 안전한 놀이 시설 확보 외 아동 청소년의 휴식, 여가 및 놀이에 대한 관점과 태도를 전환하고, 놀이와 오락 활동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보장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 이에, 물리적 공간 제공을 포함한 아동의 놀권리 보장을 위한 다양하고 통합적인 공약이 마련되고 실행되어야 함.

¶ 아동들의 목소리

“어른들은 우리랑 놀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잘 몰라요. 놀이 방법도 알려주시고 놀이가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필요한지 알려주는 교육도 꼭 받게 해주세요.”(이O유, 12세)

“청소년들은 놀 시간에도 공부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우리들에게 큰 걸림돌입니다. 자신의 존재 의의와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스스로 찾을 수 있게 도와주시시오. 휴식과 쉼, 놀이는 우리들의 것입니다.”(조O원, 18세)

“서울시에 어린이를 위한 연구를 하기 위해 관련부서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에는 어린이 휴게실과 놀이공간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학원과 공부에 매일 지친 저희들을 위해 관심을 가지고 건강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부분을 도와주어야 합니다.”(김O현, 12세)

“저희는 초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놀이도 졸업을 강요당합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성적에 신경을 써야 하니, 놀이보다는 공부를 해야한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저희의 모든 놀이는 불법 행위가 되어버립니다.”(김OO수, 16세)

“학교 근처에는 놀이터가 없어서 아파트 안에 있는 놀이터를 찾아가서 놀고 옵니다. 거리는 멀지만 다른 놀이공간이 없기 때문에 아파트 놀이터는 우리들의 아지트였습니다.”(이O령, 12세)

3. 공약 제안

아동이라면 누구나 어디서든 마음 편히 놀 수 있는 서울특별시를 만들어주세요.

1) 아동 놀이 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① 놀권리 전담 부서 마련

: 아동의 놀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전담부서 설치 또는 지정
: 전담부서 내 정기적인 아동 놀이 실태조사 시행, 놀이기본계획 수립 및 이행

② 지원 인프라 구축

: 아동 놀권리 보장 및 놀이문화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협력체계 및 네트워크 구축
: 놀권리 보장 위원회 내 관련분야 전문가 및 아동 당사자 참여 방안 모색
: 아동 놀이 지원 전문인력 양성 및 지원

2) 지역사회· 학교 내 놀이 공간 확대 및 아동친화적으로 개선

① 지역별·연령별 놀이공간 분포 현황 분석 및 편차 완화

② 차별 없는 놀권리 보장을 위한 무장애통합놀이터 확대

③ 청소년을 위한 여가시설 및 놀이공간 확대

④ 교내 전반에 놀이공간 확대

⑤ 획일적인 놀이터 개선 및 아동 참여형 놀이공간으로 전환

⑥ 놀이 환경 안전관리 및 차량, 흡연, 음주 등 놀이터 주변 유해환경 대책 마련

3) 놀이 및 휴식시간, 놀이 기회 확대

① 놀이 시간 부족에 대한 실태조사 및 놀이 시간 보장 방안 마련

② 놀이 시간 확보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협력체계(교육청, 돌봄 기관 등) 마련

③ 놀이 여가 혜택 강화

: 아동 놀이의 날 지정 및 무료 놀이 혜택 제공
: 청소년문화누리카드 대상군 확대, 문화의 날 청소년 이용 방안 마련

④ 놀권리 인식제고를 위한 성인대상 교육 및 홍보

‘아동 놀 권리 보장’ 정책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약 반영 가능	공약 반영 불가능	기타

II 안전한 통학로 구축

1. 관련 기존 공약: 없음

2. 공약의 필요성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2013 제정)

¶ 관련 정책: 2020년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 실행계획 (2020.02.)

¶ 서울시는 2020년 2월, ‘서울시 어린이보호구역 종합대책’을 수립해, 불법 노상주차장 417면 전면 폐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단속, 과속단속카메라 설치 확대 하는 등, 어린이보호구역 내 안전사고 경감을 위해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 실제로, 2020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62건으로 2019년의 114건에 비해 45% 감소하였으며, 어린이 사망 사고 역시 0건으로, 정책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하지만, 어린이교통사고의 95%는 어린이보호구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됨. 즉, 아동의 보행 안전을 위해서는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주거지역 주변, 보행 통행이 많은 이면도로 등에 대한 전면적 보행 안전 개선이 이뤄져야 함.

¶ 아동들의 목소리

“우리들은 안전하지 못해요. 학교 앞에는 횡단보도가 없는 곳도 있고, 어떤 횡단보도에는 신호 등이 없어요. 교통안전 공약을 만들어주시면 우리가 안전 해져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한O준, 13세)

“우리가 학교 갈 때 이용하는 골목에 차가 지나가면 우리는 벽에 거의 붙다시피 해서 걸어가야 해요. 등교 시간만이라도 차량의 좁은 골목길 진입은 통제되었으면 좋겠어요.” (이O영, 13세)

“저희 학교 정문 옆길에는 불법 주차된 차량들이 많아요. 어린이 보호구역이 아닌 차량 보호구역인 것만 같아요.”(유O영, 13세)

“새로 지어지는 아파트 주변 도로는 제가 학교 갈 때 이용하는 통학로이기도 해요. 여긴 경사가 급하고, 폭도 좁아 위험해요. 그리고 언제까지 도로가 정리된다는 안내판도 보이지 않고, 바람이 세게 부는 날 펜스가 다 무너져서 위협적이었어요.”(이O영, 13세)

“우리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약속을 지켜주세요.” (박O연, 13세)

3. 공약 제안

아동들이 마음 편히 등·하교 할 수 있는 안심 통학로를 구축해주세요.

1) 차별 없이, 아동이라면 누구에게나 안전한 통학로 마련

- ① 자치구 재정 수준, 통학로 안전에 관한 지역민의 관심도 등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평등한 통학로 개선책' 마련
- ② 학교 설립 연도, 입지 조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통학로 개선책' 마련

2) 안전사고 없는 통학로 조성

- ① 새로운 학교 조성 시 도로 횡단 없는 통학로 조성을 위한 규정 강화
 - 지구단위계획, 택지계획 단계에서 분양논리의 경제성보다 통학로 안전을 우선순위에 놓고, 안전 통학로 조성을 위한 관련 규정 강화
- ② 안전한 도로 디자인 기준 사용 의무화
 - 자동차 통행속도 저감, 보행자(아동) 및 운전자 상호 시야 확보, 불법 주정차 불가, 보행 횡단거리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도로 디자인 적용
- ③ 통학로 주변 공사 시행에 따른 안전 사고 예방
 - 등·하교 시간 공사 제한 및 공사 차량의 이동 제한
 - 아파트 재개발·재건축 시, 아동 통학로 확보에 대한 안전대책 마련 및 공사 현장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시행
- ④ 어린이보호구역 외 주거지역 주변 및 아동 통행 잦은 주통학로 대상 보행 안전 개선책 마련

3) 아동 의견 청취

- ① 통학로 이용의 당사자인 아동의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장 마련

4) 아동을 배려하는 교통문화 구축

- ① 어린이는 교통 취약계층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한 교통문화 개선 활동 수행
- ② 교육 강화 (아동참여형교육, 일반 운전자 및 대중교통운수 종사자 교육 강화 등)

'안전한 통학로 구축' 정책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약 반영 가능	공약 반영 불가능	기타

III 아동보호시스템 강화

1. 관련 기존 공약: 3-4 아이들이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동네 인프라 마련

1-1) 세부 공약: 3-4-2 학대 없이 신나게 놀 수 있는 서울

1-2) 내용: 권역별 공공형 아동학대예방센터 확대(1개소→5개소)

One-stop 아동 학대 지원체계 마련

1-3) 이행 완료도: 정상 추진

2. 추가 공약의 필요성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학대 예방·방지 및 피해 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2016 제정)

¶ 2019년 아동학대 신고접수는 4만 1천388건으로, 이 가운데 아동학대로 판단된 사례는 잠정적으로 3만 70건으로 집계됨. 이는 전년 대비 2만 4천 604건보다 22.2% 증가된 수치임.

아동학대로 사망한 아동 역시 2018년 28명 대비 2019년 43명으로, 사망 아동 수치 또한 증가함.

¶ 최근 인터넷 기반 스마트폰 채팅앱, SNS 등을 통한 성적 유인, 성매매 알선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N번방 사태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대상 성착취 범죄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음. 하지만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아동청소년 성착취 피해자지원에 관한 체계 마련은 지지부진한 상태임.

¶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5,6차 정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로, '온라인 성매매, 교사에 의한 성희롱을 포함한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성적 착취 및 학대를 방지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이에 따라, 아동을 둘러싼 가정, 학교, 지역사회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아동들의 목소리

“아동에 대한 폭력을 금지시켜주세요. 부모님이나 선생님 등 어른들은 '체벌은 교육이다', '가족이니깐 괜찮다' 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 폭력을 당하게 됩니다. 아동, 부모님, 선생님 대상 교육도 하고, 법도 만들어져서 마음 편히 살고 싶어요.”
(정O원, 15세)

“아동학대를 제발 없애주세요. 아동이 당하는 모든 폭력이 없어질 수 있게 모든 방법을 고민하고 실행해주세요. 아동은 때려도 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성인과 같은 동등한 인격체입니다. 폭력 받는 아동이 없는 지 관리도 계속하고 법도 강화하고, 아동학대예산도 더 많이 배정해주세요.”(김O우, 16세)

“제가 가는 중학교에는 성범죄를 한 선생님이 있어서 그 선생님 만날까 봐 무서워요. 실제로 성범죄를 한 선생님들은 또 다시 성범죄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치를 취해주세요.”
(이O빈, 14세)

4. 공약 제안

아동폭력 없는 안전한 서울시를 위해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해주세요!

1) 아동학대 예방 강화

①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전문성 확보

- 자치구 내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추가 배치
- 잦은 순환보직 방지, 별도 채용 등을 통한 아동인권 전문가 배치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② 위기 가정에 대한 신속한 발굴 및 개입 방안 마련

- 위기 임신, 출산 지원 체계 구축 필요
- 아동학대 고위험군 가족에 대한 지역사회 기반 보호 체계 점검

③ 생애주기별 부모교육 확대

2) 학대피해아동 보호 체계 강화

① 가족기능강화 및 회복을 위한 가족중심 통합 서비스 제공

- 학대피해아동이 위탁가정, 그룹홈, 양육시설 등으로 전원 조치 되었을 때, 원가정이 학대의 원인을 제거 또는 감소시키고, 가족 기능을 회복하여 아동의 신속한 가정복귀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돕는 가족중심의 통합 서비스 제공

② '전문위탁가정' 양성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 강화

- 학대피해아동 원가정 분리 후, 보살핌 받을 전문위탁가정 양성 위한 재정 지원 및 홍보 강화

3) 아동 최상의 이익에 부합하는 대안양육체계 점검

① 모든 형태의 대안양육체계 내에서 아동의 자유로운 의사 표현 보장

- 배치, 양육 환경에서의 규정, 일상생활 문제에 관한 아동 의견 청취 창구 마련

4) 성착취 피해 예방 및 피해자 지원체계 마련

① 랜덤채팅 어플을 비롯한 불법 플랫폼 규제 감독 방안 마련

② 온라인 그루밍 방지를 위한 방안 마련

③ 성착취 유입 고위험 탈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지원방안 모색 (찾아가는 거리상담 활성화 등)

'아동보호 시스템 강화' 정책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약 반영 가능	공약 반영 불가능	기타

IV 아동주거복지 실현

1. 관련 기존 공약: 없음

2. 공약의 필요성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아동 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 조례 (2020 제정)

¶ 서울시 내 주거 빈곤 상태에 있는 아동이 약 23만명 (전국 94만명)으로 집계되나, 청년, 신혼 주거 정책에 비해 후 순위로 밀려나있음. 아동기 특성 상 주거빈곤은 아동의 신체적, 정서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으며, 특히 ‘휴거(휴먼시아 거지)’, ‘엘사(LH에 사는 사람)’ 등 주거 형태로 인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체계가 매우 부족한 실정임.

¶ 서울시의 경우 25개 자치구 주거복지센터, 드림스타트, 각 주민센터를 포함하여 서울시복지재단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주거취약계층 위기가구에 대응하고 있지만 주거위기가구, 주거빈곤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길거리로 내몰리고 있음.

“7평 원룸이 우리 가족 5명이 사는 집이에요. 집이 너무 좁아서 빨래 건조대 밑에서 자야 하는데요. 자다가 계속 건조대에 부딪혀서 불편해요. 아무런 방해 없이 공부할 수 있는 방이 하나 더 있으면 좋겠어요.”(원룸 거주, 11세)

“집 안으로 바람 들어오는 구멍이 없어요. 바람이 불어도 철판 같은 게 막고 있으니까 답답해요. 열기가 방안에 계속 남아 있는데 에어컨이 없어요. 벽걸이 에어컨은 벽을 뚫으면 집이 무너져서 위험하고, 세워 놓는 에어컨은 집이 낮아서 높이가 안 맞아요.”(구옥 거주, 17세)

“겨울에는 화장실 온도가 거의 밖의 날씨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겨울에는 날이 풀리지 않으면 목욕도 힘들어요. 머리는 차가운 물로 그냥 해요.”(임대주택 거주, 19세)

“겨울에도 차가운 물만 나오니까 가스레인지로 물을 데워서 써야 해요. 난방을 해도 제가 쓰는 쪽방은 따뜻해지지 않아서 늘 춥고요. 가장 힘든 점은 옆 방에서 어른들이 싸우고 욕하는 소리를 매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불안하고 무섭고 그래요.”(쪽방촌 거주, 9세)

“집에 곰팡이가 많이 퍼져서 벽이 까맣고 바닥이 축축해요, 친구들은 서로서로 집에 초대하고 그러는데 저는 못해요. 우리 집에 데려오고 싶어도 ‘내가 이런 집에서 산다는 걸 신경 쓰지 않을 믿음만한 친구인가’를 늘 생각하다가 포기해버려요.”(반지하 거주, 11세)

“저는 고시원에 살아요. 원래 어른 한 명만 사는 곳인데. 할머니가 부탁해서 저랑 둘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방 안에서는 조용히 있어야 하고 김치도 조용히 씹어 먹어야 해요. 화장실도 다른 사람들이랑 같이 써야 해서 힘이 들어요.”(고시원 거주, 8세)

3. 공약 제안

아동이 집다운 집에서 자랄 수 있도록 아동주거복지를 실현해주세요!

1) 아동주거빈곤 현황 파악 및 대응체계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 ① 서울시 아동주거빈곤 해소를 위한 지원조례(이하 조례) 제5조를 근거로 한 실태조사 의무화 및 관련 부처 예산 편성

- 서울시 아동 주거빈곤 현황 파악 실태조사 실시, 지자체별 주거 빈곤 양상 및 지원체계 파악

- ② 최저주거기준 미달 실태 파악 및 공공임대주택 거주 아동 중 최저 주거 기준 미달가구 확인

2)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지원 체계 구축

- ① 서울형 적정주거기준 설정

- 아동의 적정한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하여 서울형 아동 적정기준을 설정 (조례 제14조)

- ② 공공임대주택 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상향 지원

- ③ 민간임대시장 최저주거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규제 등 대책 마련

3) 아동주거급여 신설 등 주거급여 현실화 및 맞춤형 주거복지제도 실시

- ① 가족구성원 특성 및 아동 성별, 연령 등을 반영한 주거 급여 제도 보완

- ② 주거급여 확대, 공공임대 공급확대 등을 통한 주거 선택권 강화

4) 아동 대상 통합 주거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 ① 긴급임시주택 및 지원 주택 시·군·구 단위 확대 설치(조례 제6조)

- ② 지자체별 주거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적극적인 운영을 통한 밀착 사례 관리 지원

- ③ 보호종료아동 주거지원사업 확대(조례 제6조)

5) 주거 빈곤지역, 공공임대주택 단지 등에 대한 인식 개선 및 환경 개선

- ① 주거 형태로 인한 차별 및 혐오가 확산되지 않도록 인식 개선 대책 마련

- ② 주거빈곤지역, 임대주택 밀집 지역에 대한 낙인을 해소하기 위한 공동체 회복 프로그램 도입

- ③ '소셜믹스' 정책 확대 및 임대주택에 대한 차별을 야기할 수 있는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 강화

- 층 분리, 시설 이용 제한 등

'아동주거복지 실현' 정책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약 반영 가능	공약 반영 불가능	기타

V 아동 친화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1. 관련 기존 공약: 4-4 서울형 대기질 개선대책 시행

1-1) 세부 공약: 4-4-6 아동복지시설 공기청정기 지원

1-2) 내용: 아동복지시설 120개소 (양육시설, 보호치료시설, 그룹홈 등) 410대 지원

1-3) 이행 완료도: 이행 후 계속추진

2. 추가 공약의 필요성

¶ 관련 조례: 서울특별시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조례 (2008 제정)

¶ 관련 정책: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서울의 약속), ‘태양의 도시, 서울’ 종합계획

¶ 전염병, 기후변화 등 각종 재난의 상황에서 아동은 가장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존재임. 특히 신종 감염병에 대한 아동친화적인 정보가 부족해 막연한 두려움과 불안을 경험하기도 함.

¶ 아동복지시설의 경우 감염의 위험으로 인해 외출을 전면 금지하거나 외부와의 접촉을 차단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아동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 악화 및 스트레스의 요인이 되고 있기에 다른 대안이 필요함.

¶ 탈가정 청소년은 감염병과 같은 재난에 가장 취약할 수밖에 없음에도, 코로나로 인해 전국 13개 청소년 아웃리치 현장 중 12개가 중단됨. 정부의 외면, 지원의 단절 속 탈가정 청소년들은 밥, 일자리, 잠자리를 찾지 못하는 위기상황에 놓이게 됨. 따라서,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감염병 정보 안내 방법 및 다양한 지원 방안(긴급재난지원금, 의료 구호물품, 주거, 일자리 등)을 모색해야 함.

¶ 폭염이나 지구 온난화의 여파로 아동은 감염성 전염병에 더욱 취약해질 수밖에 없으며, 건강과 학습능력의 저하가 유발될 수 있음. 또한, 미세먼지는 아동의 활동 반경을 제한하고, 다양한 체험의 기회를 박탈하는 등의 사회문제도 발생시킬 수 있음. 기후변화가 아동에게 미치는 이러한 부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아동은 기후 정책 및 관련 과정의 설계와 내용에서 지속적으로 간과되고 있음.

“코로나가 심해져서 식당 장사가 어려워지니 알바생 중 제가 제일 먼저 잘렸어요. 아마 나이가 제일 어려서 그랬 던 것 같아요. 알바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탈가정 청소년, 19세)

“기후변화, 지구 온난화를 모르는 사람은 없는데, 누구도 해결하려는 의지가 없어 보여요.”
(김O현, 18세)

“명절만 지나고 나면 골목에 쓰레기가 엄청 쌓여 있어요.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지 않거나, 제대로 분리배출 하지 않으면 결국 기후 재난으로 이어진다고 배웠는데,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아요.”
(이O영, 13세)

3. 공약 제안

아동 친화적 방식으로 감염병 및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주세요!

1) 아동친화적인 감염병 정보공개 방식 도입

- ① 감염병 발생 현황 및 관련 정보에 대한 안내 시, 아동들이 이해하기 쉬운 언어 및 방식으로의 안내 필요

2) 보호대상아동 유형별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 ① 아동복지시설 거주 아동 감염병 대응 지침 마련
- ② 감염병 재난 시, 탈가정 청소년에 대한 아웃리치 방안 마련 및 지원제도 수립

3) 아동 친화적 기후위기대응 체계 마련

① 아동권리기반 기후 정책 마련

- 아동·청소년을 ‘취약 집단’으로 막연하게 분류하지 않고, ‘기후 위기’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안임을 인식하여 서울시 기후변화대응 정책 내 아동·청소년을 중요 이해관계자로 언급하고, 아동의 관점을 반영한 기후 정책 수립
- 아동의 발달단계에 적합한 기후 정책 설명 제도 마련 및 기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 아동 의견 청취
- 기후 변화로 인한 실제적이고 예측 가능한 피해로부터 아동을 보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준의 조치 마련

② 기후 변화 및 환경에 대한 교육 강화

- 유엔아동권리협약 29조 교육의 목적 중 ‘자연 환경에 대한 존중’에 대한 내용 강조한 교육 강화
- 기후 변화가 야기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를 옹호할 수 있는 적극적인 수준의 환경 교육 필요

'아동친화적 위기 대응 시스템 구축' 정책 제안에 대한 귀 후보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공약 반영 가능	공약 반영 불가능	기타